

## 전도서 3:11의 문장 구조에 따른 ‘올람’ 이해

김상기\*

전도서 3:11의 뜻과 번역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이 아직까지 없고, 또 만족스럽게 해명해주는 견해도 없다. 이 구절이 이렇게 난해한 까닭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준 **עֹלָ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서 달리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אֲשֶׁר מִבְּלִי** 구문 때문이다. **עֹלָם**은 영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 수고, 수수께끼, 지식, 무지 등으로 해석되고,<sup>1)</sup> **אֲשֶׁר מִבְּלִי**는 ‘... 을 제외하고’(save that=*nur daß*)<sup>2)</sup> 또는 ‘... (결과) ... 않는다’(so that ... not)<sup>3)</sup>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אֲשֶׁר מִבְּלִי** 이해들은 서로 다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 찾아낼(מִצָּא) 수 없(게 하였)다’는 11bβ절의 진술과 하나님이 ‘제 때에<sup>4)</sup>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는 11a절의 진술을 대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11bβ절에 비취볼 때 11a절에서 전도자는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에서 코헬렛의 특성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 어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러한 모순을 낳은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두 가지 이해들은 각각 **עֹלָם**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일을 ... 찾아낼(מִצָּא) 수 없다는 것 외의 기능이 무엇이든 그 모두를 **עֹלָם**에게 허용한다면, 후자에서 **עֹלָם**의 역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들은 무엇보다도 **אֲשֶׁר מִבְּלִי**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אֲשֶׁר מִבְּלִי**가 문맥과 모순되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עֹלָם**의 의미를 그 문맥에서의 기능과 연관하여 찾고자 한다. 이어

\* 전주대학교 강사, 구약학.

- 1) J. L. Crenshaw, “The Eternal Gospel”, J. L. Crenshaw, *Urgent Advice and Probing Questions*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5), 548-572, 562; 아래 각주 13의 B. P. Gault, “A reexamination of ‘eternity’ in Ecclesiastes 3:11”도 참조
- 2) *Ges.-K.*, 152y; *ThLOT* 2:861 참조. *HALOT* 133R은 “without the possibility”로 옮긴다.
- 3) *BDB* 115R.
- 4) **בְּעֵתוֹ**의 3인칭 단수 대명사 어미는 하나님이나 **הַכֹּהֵן**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3:1은 그것이 **הַכֹּהֵן**을 받는 것으로 읽는 것을 지지한다. 물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대명사 어미가 누구를 가리키든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대명사 어미를 하나님과 직접 연관짓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서 그러한 이해들의 정당성을 3:1-15의 문맥에서 확인하고, 다시 8:17; 11:5와 비교함으로써 뒷받침하고자 한다.

## 1. מִבְּלִי אֲשֶׁר 이해

מִבְּלִי는 두 개의 전치사 מִן과 בְּלִי가 결합된 복합전치사로서 מִן의 의미가 표면으로 드러나는가 아닌가에 따라 ‘... 없어서, 없기 때문에’(for lack of)나 ‘... 아니기 때문에’(because ... not) 또는 단순히 ‘... 없이’(without)로 옮겨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문법적 요소들과 결합될 수 있다.

מִבְּלִי + 부정사: 신 9:28

מִבְּלִי + 절: 신 28:55

מִבְּלִי + 전치사 어구: 욥 18:15

מִבְּלִי + 명사: 욥 4:11; 6:6; 24:7=31:19; 사 5:13; 렘 9:9ff; 호 4:6; 습 3:6

מִבְּלִי + 분사: 욥 4:20; 렘 2:15; 렘 9:10,11; 애 1:4; 겔 14:15; 34:5; 습 3:6

이 가운데 욥기 18:15의 מִבְּלִי-לוּ에서 그것은 단순히 אֵין이나 לֹא처럼 부정어로 이해되고 따라서 그 어구는 ‘그에게 속하지 않은’ 또는 ‘그의 것이 아닌’으로 옮겨질 수 있다. 신명기 28:55에서는 מִבְּלִי 다음에 동사로 시작되는 절이 이어진다: מִבְּלִי הַשְּׂאִיר-לוּ כָּל. 이것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이유의 접속사+부정어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מִבְּלִי는 전치사로 사용된다. 이들과 달리 전도서 3:11에서는 מִבְּלִי 다음에 אֲשֶׁר가 나온다. 여기서 אֲשֶׁר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시도들은 이미 위에서 본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라고 보기 어렵다.<sup>5)</sup> 그러므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 대안은 그것을 관계사로 해석하는 것이다. 영(R. Young) 외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고 해서 그러한 시도 자체가 거부되지 않는다.<sup>6)</sup> 이 경우라면 מִבְּלִי는 위에

5) 그러한 시도들이 주는 곤혹스러움에 대해서는 D. Rudman, *Determinism in the Book of Ecclesiastes*, JSOTS 31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91-92 참조.

6) Young's Literal Translation (1862/1898): "The whole He hath made beautiful in its season; also, that knowledge He hath put in their heart without which man findeth not out the work that God hath done from the beginning even unto the end.." (YLT 전 3:11.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이다).

제시된 대부분의 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전치사로서 ‘without’으로 옮겨지고, **אֲשֶׁר**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해된다. 따라서 **מִמְּבֹלֵי אֲשֶׁר**은 ‘without which’가 될 것이다.<sup>7)</sup> 그리고 이것은 PK(어두변화형=미완료형)+X 형식의 11bβ절을 이끌므로 조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낼 수 없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것이 **עֲשָׂה**보다는 **מְצָא**를 수식하는 것으로 읽을 때 의미가 있다.<sup>8)</sup> 현재 본문에서 그것은 **אֲשֶׁר-עֲשָׂה הָאֱלֹהִים**를 수식하는 관계절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고 있을 뿐이다. **מִמְּבֹלֵי אֲשֶׁר**가 전치사+관계사 구문이라면 그 선행사는 오직 **הָעֵלָם**에서 찾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sup>9)</sup> **עֵלָם**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sup>10)</sup> 그렇다면 **עֵלָם**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기능면에서 사람의 인식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 **עֵלָם**

**מִמְּבֹלֵי אֲשֶׁר**가 가리키는 이러한 **עֵלָם** 이해의 타당성 여부는 그것이 전도서의 지향과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먼저 문제의 이 구절을 포함한 보다 작은 문맥에서 그 구절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0-11절에서는 **לִבִּי הָאָדָם ... עֲשָׂה וְנָתַן**과 **עֲשָׂה וְנָתַן בְּלִבָּם**, **עֲשָׂה**가 평행을 이루며 전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11a절과 11ba절이 **וְנָתַתּוּ**와 **אֶת-הָעֵלָם**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אֶת-הָעֵלָם**의 실제 비교 축은 **אֶת-הָעֵנָן**임을

성서학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그러한 입장을 다만 시사하는 정도만이라도 표명한 이는 필자가 아는 범위 안에서 Joüon-Muraoka 158m(2)이 유일하다.

7) 이것은 다수의 견해와 달리 ... **מִמְּבֹלֵי אֲשֶׁר לֹא**를 이중부정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예에 대해서는 M. V. Fox, *Ecclesiastes*, JPSBC (Philadelphia: Jewish Pub. Soc 2004), 23 참조

8) Th. Krüger, *Qohelet*, O. C. Dean Jr.,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80도 동일한 입장이지만, **מִמְּבֹלֵי אֲשֶׁר**를 단순히 ‘yet’으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11aβ절을 부분부정으로 이해한다.

9) A. Lauha, *Kohelet* (BK XI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69는 **בְּלִבָּם**의 대명사어미를 11ba절의 **הָאָדָם לִבִּי**가 아니라 11ba절의 **הָקָל**과 연관짓는다. 그러나 이것은 11절의 구조가 지지하지 않는다(각주 4 참조).

10)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다’의 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는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의미하고, 이는 **אֶתְהַעֲלֶם** 앞에 놓인 부사 **גַּם**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a절의 **רָאִיתִי**와 11bβ절의 **לֹא־יִמְצָא**가 모두 사람의 인식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짝을 이룬다. 따라서 10-11절은 (AB)C(BA)C 형식의 혼합된 평행법 구조로 짜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0      רָאִיתִי אֶתְהַעֲנִין

אֲשֶׁר נָתַן אֱלֹהִים לְבַנֵּי הָאָדָם לַעֲנוּת בּוֹ:

11      אֶתְהַכֵּל עֲשָׂה יָפָה בַּעֲתוֹ

גַּם אֶתְהַעֲלֶם נָתַן בְּלִבָּם

מִבְּלִי אֲשֶׁר לֹא־יִמְצָא הָאָדָם אֶתְהַמְעִשָּׂה

אֲשֶׁר עֲשָׂה הָאֱלֹהִים מִרֹאשׁ וְעַד־סוֹף:

그 안에서 **עֲנִין**(일거리)과 **עָנָה** III(애쓰다), **יָפָה**(아름답다, 좋다)와 **עָלַם**이 서로 짝을 이룬다. **עָנָה** III과 달리 **עָלַם**은 명사이지만 그 기능을 생각하면, 그 짝은 서로 평행이다. 이는 **עָלַם**이 인식과 연관된다면, 그 대상은 **יָפָה**(아름답다, 좋다)임을 시사한다. 이 경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가 자연과 세계와 역사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것이나<sup>11)</sup> 창조와 관련된 것이<sup>12)</sup> 아니라 사람의 일거리와 관련하여 이를 좋게 하는 일로 좁게 이해된다. 이 문맥에서 **עָלַם**은 사람이 그에게 부여된 일거리를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 때’에 좋게 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그 능력을 코헬렛은 여기서 **עָלַם**이라고 부른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일과 그 결과도 하나님이 좋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עָלַם**을 문맥에 따라 이처럼 기능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영원’(NAU, NJPS, RSV, ELB, LUT, LXX), ‘먼 시간’(ZB),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개역개정),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표준새번역』, NRS), ‘시간의식’(가톨릭 『성경』), 또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공동개정』) 등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세상’(KJV, JPS, VUL)이나 ‘무지’(NET)라는 번역은 더욱 더 그렇다.<sup>13)</sup> ‘knowledge’(YTL)가 인식 능력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비

11) S. Wagner, art. **אָמַם**, THWAT Bd.4, 1043-1063, 특히 1058-1059.

12) Ch. D. Ginsburg, *Qoheleth* (New York: KTAV Publish House 1861/1970), 308.

13) G. A. Bart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T Clark, 1912=1980), 98.101.105. B. P. Gault, “A reexamination of ‘eternity’

교적 문맥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text{עָלַם}$ 이 이를 지지할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text{עָלַם}$ 은 의미만 아니라 어원도 분명치 않고,<sup>14)</sup> 또한 3:11에서  $\text{עָלַם}$ 이  $\text{עָלַם}$ 의 불완전 표기(*scriptio defectiva*)인지 아니면 모음을 고쳐 다르게 읽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sup>15)</sup> 그런데도 현재의 문맥에서  $\text{עָלַם}$ 의 의미를 확정지으려면 짤막하게나마 어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하지만 HALOT가 말하는 대로  $\text{עָלַם}$ 의 어원이 불확실하므로,<sup>16)</sup> 여기서는 그 어원으로 추정되는 것들 가운데  $\text{עָלַם}$ 에만 관심을 한정시키고자 한다. HALOT는  $\text{עָלַם}$ 을 I(감추다, 숨기다), II(어둡다), III(성숙하다<sup>?</sup>, 강하다<sup>?</sup>)<sup>17)</sup>으로, BDB는<sup>18)</sup> I(감추다, 숨기다), II(성숙하다, 강하다), III(세상<sup>?</sup>, 시대<sup>?</sup>)으로 각각 분류한다. 그리고 BDB는  $\text{עָלַם}$ 을 III(세상<sup>?</sup>, 시대<sup>?</sup>)과 연관시킨다. 이를 G.D.O. Lete/J. Sanmartín의 우가릿어 사전<sup>19)</sup>과 M. Jastrow의 타르굼 사전<sup>20)</sup>의 해당 항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Lete/Sanmartín

/ 'l-m / (숨겨져 있다, 알려져 있지 않다, 모른 채 지나가다)

-> 'lm (영원, 영속) 158-159

-> glmt II (숨김, 은닉, 어둡, 짙은 안개)<sup>21)</sup>

in Ecclesiastes 3:11”, *Bibliotheca sacra* 165 (2008), 39-57도  $\text{עָלַם}$ 에 대한 10가지 유형의 해석 시도들(40-42)을 검토한 후 그 의미로 ‘어둡/무지’를 지지한다(57). 김구원, “전도서 3:11의 ‘ $\text{עָלַם}$ 의 의미”, 제 87차 한국구약학회 추계 학술대회(2011/9), 205-213은 3:11절을 야누스 평행법으로 읽고  $\text{עָלַם}$ 이 영원과 무지의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text{עָלַם}$ 을 ‘영원’으로 번역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무지’에서 대안을 찾고, 다시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무지’와 함께 ‘영원’을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선정하는 것은 오류에 가깝다(209-210). 야누스 평행법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text{עָלַם}$  이하의 다른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HALOT, 798-799, 특히 798R이 그러한 입장이다. 799R은 3:11과 관련하여 단지 “(sense of  $\text{עָלַם}$ ”라고만 말할 뿐 의미를 규정하지 않는다. H. D. Preuß, art.  $\text{עָלַם}$ , *ThWAT* 5, 1143-1159, 특히 1144-1145도 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3:11에서  $\text{עָלַם}$ 의 의미를 Dauer(기간, 오랜 시간, 존속)로 새긴다. *Gesenius-B.* 572R도 참조.

15) B. P. Gault, “A Reexamination of ‘eternity’ in Ecclesiastes 3:11”, 51-52 참조.

16) HALOT, 834-835 참조.

17)  $\text{עָלַם}$  II (성숙하다<sup>?</sup>, 강하다<sup>?</sup>) ->  $\text{עָלַם}$  (젊은이, 청년)

18) BDB, 761-763.

19) G. D. O. Lete; J. Sanmartín, *A Dictionary of Ugaritic Language in the Alphabetic Tradition*, Part I, (2nd ed.), W. G. E. Watson, trans. (Leiden: Brill, 2004), 158-159, 320-321.

20) M. Jastrow, *Dictionary of the Targumim*, 1084.

21) / 'l-m /에서 파생된 명사들은 의미에 따라 ‘이’와  $\text{עָלַם}$ 로 분화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의 차이로 구별된다. glmt II에는 / 'l-m /에 없는 어둡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HALOT, 835가  $\text{עָלַם}$  II를 glm(어둡다) 내지 그 명사형과 연관지를 때 그 명사형은 glmt II일 것이다. 그런데 G. D. O. Lete; J. Sanmartín, 위의 책이 제시하는 glm 항목은 명사로서 소년, 젊은이, 왕자, 귀족을 의미할 뿐이다(319). 따라서 우가릿어에 glm(어둡다) 내지 'lm II(어둡다)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면, HALOT의 입장은 근거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HALOT

עלם I (감추다, 숨기다)

עלם II (어둡다)

BDB

עלם III (세상<sup>2)</sup>, 시대<sup>2</sup>) -> עולם (오랜 시간, 기간, 태고, 아득한 옛날, 미래)<sup>22)</sup>

Jastrow

עלם II (감추다, 숨기다 [<- 둘러싸다, 묶다/감다])<sup>23)</sup>

-> עלם I (비밀)

עלם III (영원, 세상)

현재까지 발견된 우가릿 문헌들은 아직 /‘-l-m /이 세상을 지칭하거나 그러한 낱말을 산출하는 데까지 발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히브리어와 우가릿어의 긴밀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숨겨져 있는 것, 인식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란 생각이 먼저 시간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BDB의 추정대로 히브리어에서 עולם이 세상<sup>2</sup>이나 시대<sup>2</sup>를 모두 포괄하는 עלם III에서 파생되었다기보다는 그 역일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성서의 עולם은 타르굼의 עלם III이 영원과 세상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아직 시간적 의미만 갖기 때문이다. 타르굼의 עלם III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나중에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파악할 수 없는 긴 시간이라는 생각에 계속 존속한다는 개념이 덧붙여져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한 결과일 것이다.

타르굼 사전의 עלם I은 עלם II가 명사화된 것으로 숨기는 일이나 그 행위로 인해 숨겨진 것을 가리킨다면, 우가릿어의 glmt II는 숨김 이외에 ‘어둠’이나 ‘ 짙은 안개’를 의미하며, 이것들을 일종의 숨겨주는 주체로 이해한다.

/‘-l-m /의 이러한 의미 변천과 확장은 전도서 3:11의 עלם도 그와 같은 전개 과정의 산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도서 3:11의 문맥에서 עלם은 하나님이 준 것,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식하는 것과의 관련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전도서에서 그러한 עלם은 ‘영원’으로 옮겨지는 עולם과 표기가 다르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비교. 전도서 1:10에서 עולםותם은 ‘세대’를 나타낸다). 물론 역대상 16:36은 עלם을

22) BDB, 761. Gesenius-B., 571-572도 거의 동일한 입장이다.

23) M. Jastrow, *Dictionary of the Targumim*, 1084는 עלם II(소년, 젊은이) ‘lm II(감추다, 숨기다)와 연결짓고 있는데, 그것은 עלם I(둘러싸다, 묶다/맷다, 강하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עֹלָ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전도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부정되지는 않겠지만, 전도서가 그 안에서 양자의 표기를 구분한다는 점에 강조점이 더 두어져야 할 것이다.<sup>24)</sup> 전도서 3:11은 인간에게 수여된 능력을 עֹלָם이라고 명명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때와 그의 일을 종종 (?)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본래 의도된 것과 다르게 숨겨진 혹은 가려진 능력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숨겨져 있다’를 의미하는 /‘-l-m /에서 파생된 עֹלָם으로 표현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그 말의 기능과 기원 및 특징을 모두 고려할 때 그것은 오히려 명감각(冥感覺: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감응하는 인식 능력)으로 번역되어야 적절할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이름과 달리 그 작용은 사실상 밝음이라 해야 할 것이다.<sup>26)</sup>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명명할 뿐이다. 사람은 본래 그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sup>27)</sup>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과제를 붙잡고 애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일을 제 때에 좋게 한다는 것을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다.

### 3. 전도서 3:1-15의 구조

이 같은 10-11절의 관찰(רְאִיתִי)을 바탕으로 9절의 질문 내지 탄식에 대한 12-13절의 답변(רָדַעְתִּי)이 가능해지고, 그런 점에서 9절과 12-13절은 짝을 이루며 10-11절의 바깥 틀을 구성한다.<sup>28)</sup> 13절의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이고 ‘보다’(רָאָה)는 עֹלָם의 구체적 작용을 나타낼 것이다. 12절은 13절

24) 이와 달리 전도서 1:4; 2:16; 3:14; 9:6; 12:5 등은 모두 עֹלָם을 사용하여 ‘영원’을 나타낸다. 12:5의 ‘영원한 집’은 무덤을 상징한다.

25) ‘명감각’은, 필자가 ‘신명’(神冥)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한성서공회의 전무용 박사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올림말인 ‘명감(冥感)’을 바탕으로 제안한 대안을 따른 것이다.

26) 이는 대학의明明德에 대한 정자(程子)의 설명과 비교해 볼 수 있다: 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으로 비어 있고 밝고 어둡지 않다. 그래서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고 만사에 응한다. 다만 성품에 의해 제한당하고 사람의 욕심에 의해 가려지면 때때로 어두워진다. 그렇지만 그 본체의 밝음이란 일찍이 그친 적이 없다.

27) 이 점에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롬 1:19절의 τὸ γνωστὸν τοῦ θεοῦ(하나님에 대해 알려질 수 있는 것)와 더 나아가 롬 31:31-34의 ‘토라’와도 비교될 수 있다. 이것들과의 차이는 물론 עֹלָם이 능력인 반면에 그것들은 일종의 지식이라는 점에 있다.

28) 단락 구분을 위한 형식적 요소들은 10절이 רְאִיתִי로, 12절이 רָדַעְתִּי로, 14절이 רָדַעְתִּי로 각각 시작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9절은 מָה -의문문이기 때문에 10절과 구분된다.

이 그리는 삶의 모습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9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정한 때에 인간의 일을 좋게 한다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것이리라. 그에 비춰 보면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인간의 삶은 오직 수고, 그것도 헛된 수고일 따름이다(비교 전 4:6). 12절은 그 대안적인 삶을 선을 행하는 곧 타인을 향한 삶에서 찾는다. 이러한 인식과 삶의 경계를 바로 1절과 14-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15절도 9절의 물음에 대한 답변의 성격(יָדָעוּ)을 갖지만, 초점이 그 물음의 배경인 1절의 진술에 맞춰져 있다. 특히 14a절과 1절이 ‘때’와 עֵתוֹת을 대비시키고 있음이 눈길을 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또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14b절은 1-15절의 진술 목표를 드러내며, 15a절은 14a절과 평행을 이루고 15b절은 14aβ절과 짝을 이룬다.<sup>29)</sup> 2-8절은 1절에 대한 예증들이다.<sup>30)</sup> 따라서 3:11절의 מִכְּלִי אֲשֶׁר וְעָלַם를 위에서처럼 이해하는 것이 1-15절의 문맥에서 정합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그와 같은 이해가 가능하고 또 무리가 없는 것임을 말해준다.

1-15절 전체는 이처럼 대체로 교차법적 구조를 보이면서 ‘때’와 ‘인간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형태의 1-15절은 1절을 설명하기 위한 예들인 2-8절을 구별해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a 1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 쳐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29) A. Pinker, Qohelet 3:14-15, *Biblische Zeitschrift* 54 (2010/2), 253-271은 15b절을 14b절과 평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문을 변경한다. 그러나 15a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술하는 전체로서 14aα절에 상응하고, 14aα절과 14aβ절의 관계는 15a절과 15b절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그의 입장은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15절은 그와 같은 구조 때문에 접속사 없이 מָּ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14절의 ‘나는 알았다’에 종속되는 절로 읽는다.

30) 17b절은 1절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문맥은 전혀 다르다. J. Blenkinsopp, “Ecclesiastes 3.1-15: Another Interpretation”, *JSOT* 66 (1995), 55-64, 특히 60이하는 3:2-8과 3:1, 9-15의 관계를 인용과 주해의 관계로 본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대로 3:1, 9-14의 구조는 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2-8절을 Folie로 간주하지만, 1절을 구체화하는 예들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5 돌을 내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겨안을 때가 있고 겨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6 찾을 때가 있고 없앨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내던질 때가 있고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b 9 (그러니) 일하는 자가 (이익을 얻고자)<sup>31)</sup> 수고한들 무슨 이익이 그  
 (에게 있겠는가)?

c 10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일거리를 인생들에게 주셔서 애쓰게 하셨고  
 11a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 좋게 하셨다.

c 11b α 또한 그는 ‘명감각’(冥感覺=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감응하는  
 인식 능력, ‘올람’)을 그들 마음에 주셨으니,

11b β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  
 지 알 수 없다.

b 12 나는 알았다. 그들에게는 각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좋은 일’(토  
 브)을 하는 것 외에 좋은 것이 없고,

13 또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수고에서 좋은  
 것을 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선물)임을 (알았다.)

a 14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르=올람)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로부터 떨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그들이 그 앞에서 외경하게 하려는 것임을,

15 (그리고) 있던 것은<sup>32)</sup>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고,  
 하나님은 지난 것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 4. 전도서 8:7, 17과 11:5와의 비교

이 구절들은 위와 같이 이해된 3:11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3:11은 8:7은 물론이고 17절도 모두 미래의 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31) אֲשֶׁר וְהָאֵלֹהִים의 관계대명사로 이해된다(in which => for which ).

Was ist der Gewinn des Schaffenden, for which er sich abmüht?

32) וְהָיָה는 ‘있는 것’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들과 구별된다. 이 가운데 8:17의 의미 영역은 8:16-9:1의 다음 구조에서 드러난다.

8:16 a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아보고 땅 위에서 행해지는(אָפְּרָא) 일을 봤을 때,

b 비록(כִּי) 밤이나 낮에도 그가 자기 눈으로 잠을 보지 못한다 해도,

17 a'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았다.

b' 참으로(כִּי) 사람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אָפְּרָא) 행사를 알아낼 수 없다

b 사람이 아무리 애써 찾는다 해도 알아낼 수 없고

b' 지혜자가 안다고 말해도 알아낼 수 없다

9:1 내가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의 일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들 앞에 있는 것을 사람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16b절의 כִּי-절은 특히 3인칭 남성 어미대명사 때문에 현재의 문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sup>33)</sup> 16-17절의 교차법적 구조는 그것이 우연이나 잘못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34)</sup> 그렇다면 그 어미대명사는 17a절 כִּי-절의 אָפְּרָ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5)</sup> 이 경우 16-17절의 כִּי-절은 “사람이 아무리 ... 없다”는 나머지 구절과 평행을 이루고 인간의 인식이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한다.<sup>36)</sup> 한편 9:1은 9:12와 짝을 이루면서 9:1-12를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지만, 1절 첫머리의 כִּי는 지시적(deictic) כִּי-로서 8:16-17을 전제한다. 따라서 9:1은 8:16-17을 미래의 일과 관련시켜 읽게 하고 동시에 그 의미를 구체화한다. 이와 달리 3:11은 단지 자신의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제 때 좋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이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33) C. L. Seow, *Ecclesiastes*, AB (New York et al.: Doubleday 1997), 289.

34) 17a절의 תָּחַת הַשָּׁמַיִם וְעַל הָאָרֶץ וְאִתְּךָ אֲשֶׁר נַעֲשֶׂה וְאִתְּךָ אֲשֶׁר נַעֲשֶׂה와 16a절의 וְעַל הָאָרֶץ וְאִתְּךָ אֲשֶׁר נַעֲשֶׂה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35)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지만, 뒤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없지 않다(대명사의 kataphorisch 용법).

36) C. L. Seow, *Ecclesiastes*, 276, 289-290은 כִּי가 본래 ‘on account of which’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도 타르프의 아람어 ‘bdyl d’를 따라 이를 ‘therefore’(그러므로)로 고쳐 읽는다. 그러나 앞의 구절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전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1:4-6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와 관련하여 또한 그 시기들과 연관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사람의 인식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한다.

4 바람을 지켜(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살피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 너는 숨이 임산부 뱃 속의 (아이) 뼈에<sup>37)</sup> 어떻게 이르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6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놀리지 말라 어느 것이 잘 될지, 이것일지 저것일지 혹 둘 다 하나 같이 잘 될지 너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1:5는 5a절의 비유가 말하는 대로 일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 3:11은 어떤 암시도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11:6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일하라고 권고한다면, 이것은 8:7, 17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4절은 사람이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진행을 정확히 알고자 그 때만 찾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그 근거를 11:5에서 찾는 것이라면, 이것은 3:11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1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제 때에 좋게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뿐이지 그 때를 기다려 일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8:7, 17과 11:5는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3:11과 모순 관계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인식할 수 있는 ‘명감’ (冥感)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가 일하는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3:11은 אִשְׁרֵי מַבְּלֵי אֲשֶׁר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고, עֵלָם도 달리 파악된 맥에 따라 다르게 옮겨져야 함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명감각’(冥感覺: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감응하는 인식 능력, ‘올람’)을 그들 마음에 주셨으니,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다.”

(투고 일자: 2012. 10. 15.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6.)

37) 5절의 כִּנְעָמִים은 일부 사본들의 독법을 따라 כִּנְעָמִים으로 고쳐 읽는다. C. L. Seow, *Ecclesiastes*, 337; . M. V. Fox, *Ecclesiastes*, 73-74.